

[2021 임용고사 예시답안 - 전공A]

1.

- ㉠ 종족(宗族), ㉡ 하회(河回)

충분히 복수 답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족(同族), 집성(集姓)으로 쓰신 선생님들은 낙담하지 마세요^^ 자료 맨 뒤에 이의신청근거를 수록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2.

- ㉠ 우발라(Uvala) 또는 복합돌리네(Compound Doline)
- ㉡ 싱킹크리크(Sinking Creek)

이 문항은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우발라와 복합돌리네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싱킹크리크 심지어는 싱킹크리크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규범 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예시 답안을 쓰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우발라’ 는 안되는거냐고 카톡이 오네요 우발라가 맞구요...복수 답안이 복합돌리네입니다. 사진에 나온 지역은 혹시 수업 시간에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저의 사부님이신 김○○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지역이기도 하고 요즘 하안단구 위의 돌리네가 아닌 고위평탄면 위의 돌리네가 트랜드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암튼 김○○ 교수님과 같이 답사를 다녔던 후배 중에서 두 분이 교수가 되었는데, 그 중 한 분이 이번 시험을 출제하신 모양입니다.



3.

- ㉠ 성운형 대도시 또는 성운형 메트로폴리스
- ㉡ 창조

4.

- ㉠ 속성
- ㉡ 메타데이터(Metadata)

5.

- (1) ㉠ 사민필지(士民必知)
- (2) ㉡ 지구과학적 연구 전통
- (3) [A]는 전통적인 대륙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였고, [B]는 지역를 아래에 계통적 주제나 사회적 이슈(쟁점)를 배열하여 조직하였다.

(3)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하겠네요. 출제자께서 서태열 교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감안하여 [B] 내용 조직 방법은 지역-주제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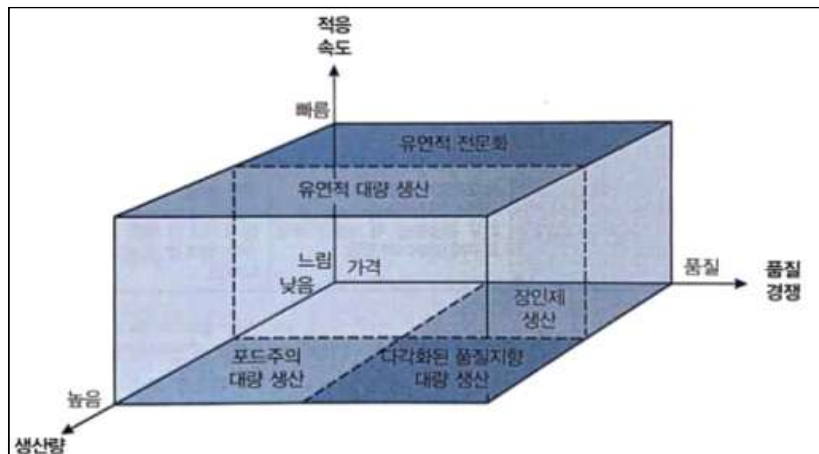
6.

- (1) ㉠ 알류산 저기압(Aleutian Low)
㉡ 기압 경도력
- (2) ㉢ 대륙성 한대기단(cP)
- (3) 발원지에서는 한랭 건조한 기단이 해양을 지나면서 수증기를 흡수하여 온난 습윤한 기단으로 변질된다.

7.

- ㉠ 고객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도는 강하다.
- ㉡ 고객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지리적 근접성은 높다.
- ㉢ A 생산체계는 품질 경쟁에 초점을 두며, B 생산체계는 가격과 품질 경쟁에 모두 초점을 둔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A 생산체계는 장인 생산, B 생산체계는 유연적 대량 생산(도요타 린생산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유연적 대량생산은 가격과 품질 경쟁 모두 해당합니다.



▲ 생산체계의 이념형

8.

㉠ 시아파

A 아랍에미레이트 (United Arab Emirates)

B 인도(India)

㉡ 외국인 이주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A국가의 성비는 증가하였다.

이 문항 풀면서 제 목소리가 들렸다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군요^^

“에미레이트 항공사는 어느 나라 손님이 가장 많지? 1등은 인도, 2등은 파키스탄이야...두바이에서 두바이 사람 만나는거 쉬운 일이 아냐...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아...두바이에서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눈을 떠보니 시커먼 남성 간호사가 나를... ^^”

9.

(1) ㉠ 가설 설정

(2) ㉡과 관련되는 교육과정 사조는 학문중심 교육 과정이며, 탐구 학습의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과학적 문제와 달리 문제중심학습의 문제는 학생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문제이다.

(3) 자기관리 역량

10.

(1) ㉠ 산해경(山海經)

㉡ 아시아

(2) A 지도는 중앙에 예루살렘(Jerusalem)이 위치하여, 크리스티교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B 지도는 중앙에 중국이 위치하여 중국 중심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11.

㉠ 입자가 작은 모래는 바람에 의해 침식을 받아 쉽게 제거되지만, 입자가 큰 자갈은 그렇지 않아 그 자리에 놓이게 된다.

㉡ 도약(跳躍, Saltation)

㉢ 바르한은 탁월풍의 풍향이 비교적 일정하고, 횡사구보다 모래 공급량이 많지 않은 곳에 발달한다.

12.

(1) ㉠ 천이, ㉡ 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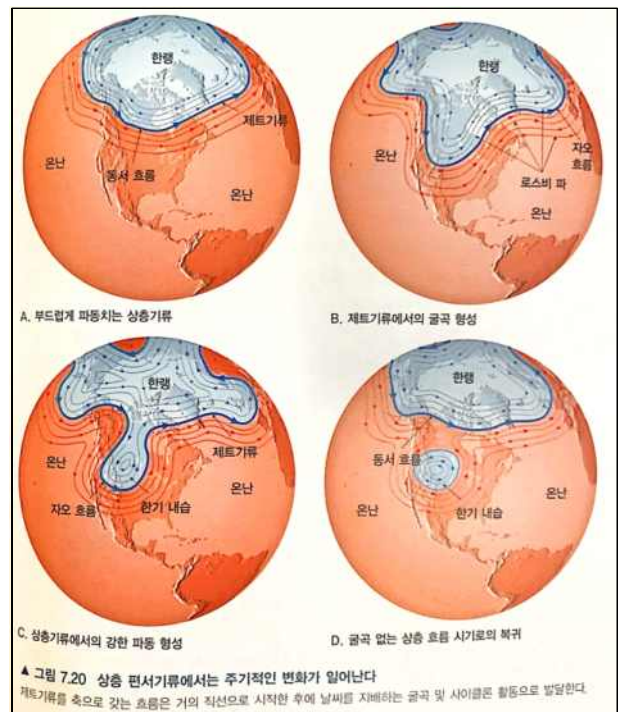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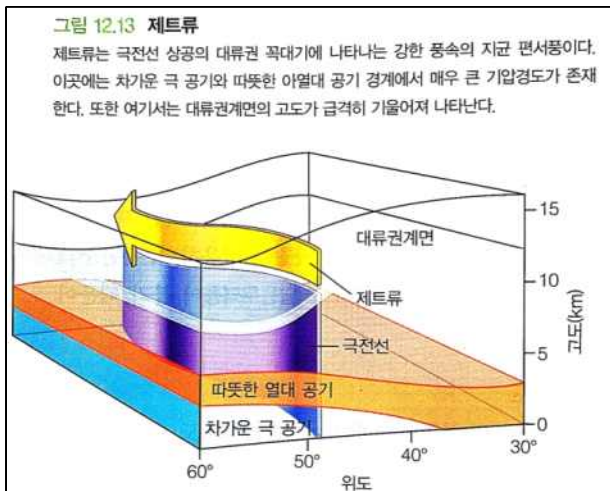
(2) 침입과 천이의 과정은 D-A-C-B의 순으로 진행되며, 주거여과과정은 B-C-A-D 순으로 진행된다.

[2021 임용고사 예시답안 - 전공B]

1.

- ㉠ 편서풍
- ㉡ 한대 제트기류(Polar Jet Stream) 또는 중위도 제트기류

이 문항도 언급을 해야겠군요. 그냥 제트기류라고 쓰신 선생님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제트기류까지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광의의 제트기류는 한대 제트기류와 아열대제트기류 모두를 의미해야겠지요. 그러나 협의의 제트기류는 한대 제트기류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이 한대 제트기류를 그냥 제트기류 또는 제트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저 그림은 분명히 한대 제트기류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냥 제트류라고 되어 있지요? 이런 식으로 서술된 책들이 아주 많을거예요. 아무거나 찾아서 근거 제시하면 됩니다^^



▲ 한대제트기류를 ‘제트기류’로만 제시한 사례들

2.

- ㉠ 오프쇼어링(Offshoring) 또는 해외국가서비스(역외)
- ㉡ 외주(Outsourcing) 또는 하청(Subcontracting)

요 문제에 대해 이희연 교수님의 책에는 오프쇼어링을 ‘역외’로, 아웃소싱을 ‘하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웃소싱의 가장 무난한 번역은 ‘외주’가 됩니다. 그래서 ㉡은 외주와 하청을 모두 정답처리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외주는 기업 내부에서 수행하던 생산과 서비스를 외부화하는 것이고, 하청은 외부 기업과 위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외주와 하청을 구분하라는 요구는 지나친 측면이 있지요^^

정확한 용어의 위계는 ‘외주(아웃소싱)’가 가장 넓은 말입니다. 오프쇼어링은 외주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웃소싱, 해외아웃소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청도 외주에 포함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3.

- ㉠ 과거 퀴즈에서 받은 기본 점수와 현재 점수를 비교하여 각 학생의 향상 점수를 계산한다.
- ㉡ 집단성취분담모형(STAD)
- ㉢ 비지시적 발언
- ㉣ 개인이 다른 구성원의 목표 달성에 무임승차가 가능한 경우, 다른 구성원도 집단의 목표성취를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되는 현상

4.

- (1) ㉠ 지대격차, ㉡ 잠재적 지대
- (2) ㉢ 젊으면서도 도시풍의 전문적 종사자 집단인 여피족(Yuppies)과 맞벌이 무자녀 부부인 딩크족(DINK)이다.

5.

- (1) A 그로인(Groin)
- (2) ㉠ 비치드립팅(Beach drifting, 해변표류 또는 해변이동)
- (3) 비치드립팅(해빈표류)은 스워시와 백워시에 의해 퇴적물이 이동하며, 롱쇼어드립팅(연안표류)은 해안에 평행하게 흐르는 연안류에 의해 퇴적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 문항의 마지막 서술은 길게 쓰실 필요없이 핵심 키워드만을 이용해서 저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6.

- (1) 보편종교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며, 민족종교는 특정한 부족이나 민족에 국한하여 포교 활동을 한다.
- (2) 갠지스 강(Ganges River), 재워치 또는 재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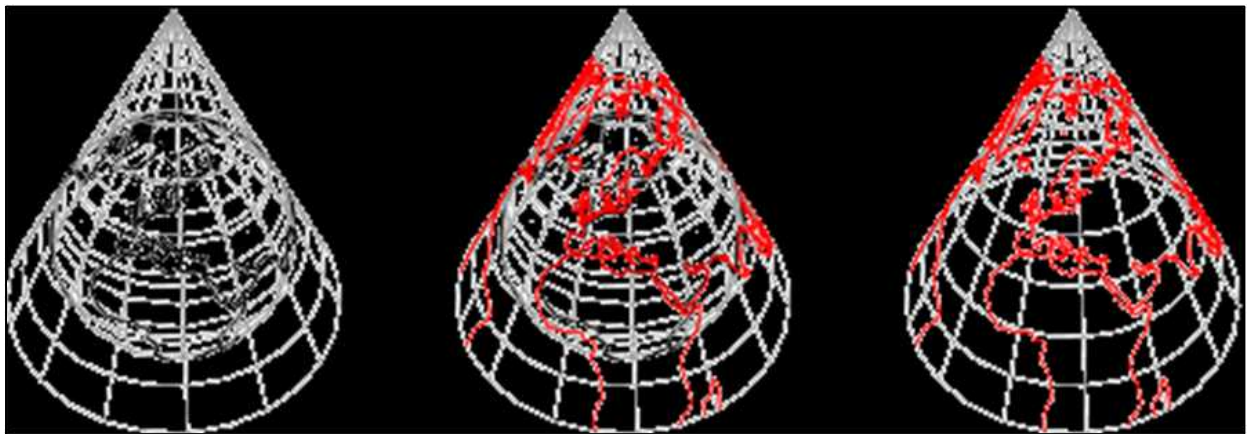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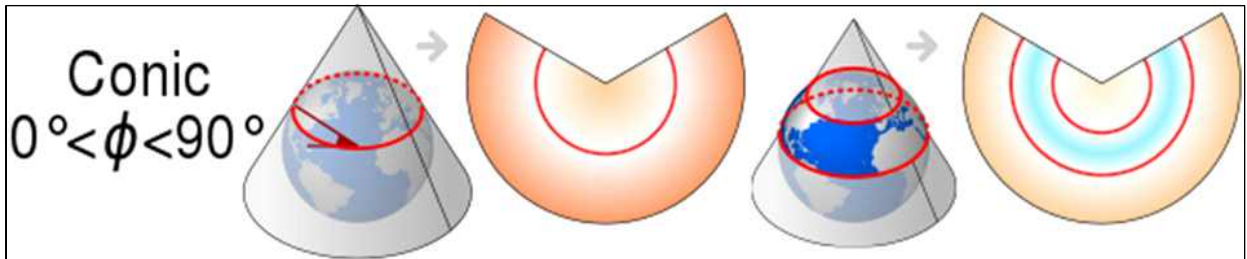
7.

- (1) ㉠ 암묵적 지식
- (2) ㉡ 실증주의
- (3) ㉢ 형식적 고착, 탈맥락화된 형식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게 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하는 상황

8.

(1) ㉠ 원통, ㉡ 원추

(2) 표준선으로부터 북쪽으로 갈수록 A, B 지도 모두 면적이 확대(과장)된다.



이 그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9.

(1) 1차 노동 시장은 2차 노동 시장보다 고임금이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

(2) ㉠ 재정적 또는 금전적, ㉡ 수적

10.

(1) ㉠ 기온역전, ㉡ 사면하강풍

(2) A 지역은 지표 피복이 알베도가 낮은 타이가로 이루어져, 알베도가 높은 눈과 얼음(빙하)으로 이루어진 B 지역보다 일사가 많아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다.

11.

(1) ㉠ 지리도해력

(2) ㉡ 준거,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즉 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3) ㉠ 정보 활용 능력

수고하셨습니다.

서둘러 예시 답안을 작성해서 드리는 이유는 이의신청시간이 낼 오후 5시인가 그럴죠?

예시 답안을 작성하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1년내내 고생을 한 이유가 고작 요런 문제 풀기 위해서란 말인가?’

작년 문제와 비교해봐도, 발전되거나 세련된 문항은 찾아보기 어렵네요. 고작 A~B 지도 순서나 바꾸어, 알고 있는데도 틀리게 만드는 참 고약한 문제도 있더군요.

그럼에도 시험 종료 이후에 저보고 적중 많이 해주셨다고 감사 문자 보내주신 선생님들 정말 고맙구요. 꼭 좋은 결과로 노력에 대한 일부 위로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해설 강의를 해드리려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안거리를 찾아본다면, 제가 마지막 격려 카톡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운전 시간의 대부분을 직진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몇 번의 방향 전환이다!” 저의 교사로서의 가치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운전은 선생님들이 하셨지만, 제가 조언한 몇 번의 방향 전환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합격선이 궁금하실텐데,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간의 편차는 좀 있겠지요. 합격선에 대해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2차에 쏟아부으세요. 한 주 쉬고 2차 지도에서 만나요^^

[2021 임용고사 예시답안 _ A형 1번]

안녕하세요? 박대훈입니다.

어제 저녁 2021 임용시험지를 얻어서 해설 자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A형 1번 문항부터 복수 답안 소지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 문항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시험 나올 전에 수험생들에게 드린 보충 문항을 첨부하겠습니다. 즉, ‘자기가 잘못 가르치고 괜히 복수 답안이라고 우기는거 아님?’ 이런 오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첨부한 문제는 인문지리학의 시선(203~)에서 발췌한 내용이므로, 그 문항을 참고로 하여 공부한 수험생은 출제자가 의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족’이라는 답안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9. 제시된 글의 ㉠~㉢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쓰시오.

종족 촌락의 입지는 종족이라는 집단적 시야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장소들에 해당한다. 즉, 본관지나 새롭게 마련된 근거지가 바로 그러한 장소들이다. 본관지(本貫地)에서의 종족 촌락은 시조 발상지를 상징하고 그 지방의 토착 세력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새로운 근거지의 경우에는 집단 거주와 현달한 조상을 매개로 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모사회(母社會)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관지를 떠나 새로운 근거지에 형성된 종족 마을은 본관지로부터 장거리 이주를 통해 정착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거주지의 원격 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리적, 사회적 군집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본관지 인근 지역에 분포하는 종족 촌락의 경우는 조선 시대의 유교 이념과 같은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시기상 사족 집단의 지배 질서가 와해되기 시작한 17세기 이후에 발생한 종족 촌락의 경우는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적 결집을 강화하려 한 하나의 전략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종족 촌락권을 충전하는 다양한 (㉡)은 그 경관을 생산해 낸 형성 주체의 정체성, 장소감, 이데올로기를 내포한다. 형태적이고 가시적이라는 점에서는 전통적으로 개념 정의되어 온 (㉢) 개념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경관 형성의 주체인 사회집단의 정체성과 그 장소에 대한 사회적 애증으로서의 장소감, 그리고 가치관과 공간 행태의 배경으로서 특정 이데올로기가 경관 속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보면, (㉠)은 (㉢)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한다. 어떤 사회 집단이 (㉠)을 창출했다는 것은 장소와 생산과 소비, 영역성의 확장 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 모의고사 보충문제 9번

별 것은 아니지만 시험에 출제된 문항에 근접하게 보충자료를 드렸음에도, 안타깝게 이 문항은 복수 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양심에 따른 판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위의 보충 문항을 통해 정답을 썼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에게는 너무나 미안할 따름입니다. 저도 저와 함께 공부한 수험생이

단 1점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우선 출제 교수님께서 의도하신 답안으로 예상되는 ‘종족’ 마을 또는 ‘종족’ 촌락이라는 용어의 근거는 확실합니다. 아마 쌤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 ‘인문지리학의 시선’에 명시적으로 종족 촌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문제는 ‘동족’ 촌락 또는 ‘동족’ 마을, 그리고 ‘집성’ 촌락이 과연 복수 답안이 될 것인가? 입니다. 인문지리학의 시선 200쪽 하단에는 ‘동족 부락, 동성 촌락, 집성 촌락, 씨족 촌락 등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거나 부적절하며 종족 마을 혹은 종족 촌락이라고 불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 책을 근거로 한다면 복수 정답의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또한 (주)사회평론에서 펴낸 ‘역사지리학 강의’ 181쪽에는 ‘종족이라는 개념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이 사용한 동족(同族)이라는 표현에 의해 식민지화되어 잊혀졌을 뿐, 우리나라 성씨 집단을 지칭함에 있어서 명목상이나 실질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물론 종족 집단이 주인공인 마을을 지칭할 때에도 동족 부락, 동성 촌락, 집성 촌락, 씨족 촌락 등의 표현을 잘못된 것이거나 부적절하며 종족 마을 혹은 종족 촌락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이쯤되면 끝난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지리학 강의’의 저 부분을 쓰신 교수님도 ‘인문지리학의 시선’의 그 교수님입니다.(물론 다 아시겠지만 성함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한 번 고찰해 봅시다. 저 책들의 필자께서는 ‘동족 촌락’, ‘집성 촌락’ 등은 잘못된 말이다. 그러므로 ‘종족 촌락’이라고 부르자. 그 주장에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말이 확실하다면 늦었더라도 고쳐야겠지요.

그런데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이니 줄 알았는데,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이 아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줄 알았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처럼 과학적 사실의 발견으로 인한 것이 아니지요?

즉,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용어의 변경입니다.

저는 과거에 화학을 전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흡열 반응의 상대어로 ‘발열 반응’이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이 되는 것이므로 ‘방열 반응’이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용어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사례가 이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신대’라는 용어로 배웠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본군 ‘위안부’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성노예’가 맞는 표현이랍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 만약에 그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따르지 않을까요? 마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제시대’라고 했던 것을 지금은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요^^

역사과에서 명확히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정립했듯이, 지리과에서 ‘종족 촌락’이라는 용어로 정립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왜 2015 개정 교육 과정 한국지리에서는 여전히 ‘동족 마을’ (비상교육 한국지리 91쪽 첨부)이나 ‘동족 촌락’ (천재 한국지리 94쪽 첨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까요?

(이전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구요)


사례 더하기 **하회 마을을 통해 본 촌락의 형태와 기능**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 마을은 풍산 류(柳)씨의 동족 마을로,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고 있어 마을 이름이 하회(河回)이다. 하회 마을은 자연 제방에 위치하며, 형태로 볼 때 가옥의 밀집도가 높은 **집촌**에 해당한다. 하회 마을의 북서쪽 제방에는 '만송림'이라는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숲은 강물로부터 제방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하회 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자연환경과 전통 마을의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 최근에는 다양한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즐기기에 많은 관광객이 하회 마을을 찾는다.

集 모을 집, 촌 마을 촌, 집들이 한곳에 모여 이른 마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촌락의 형태임.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조상 숭배 및 혈연 의식이 강하고, 농업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상부상조 문화가 나타난다.



하회 마을의 지형도


▲ 비상교육 한국지리 p.91

소스르 학습

협동 작업의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는 (집촌, 산촌)이 발달해 있다.

*** 동족 촌락**
동성동본의 씨족이 한 지역에 모여 생활하는 자연 촌락이다.

▶ **하회 마을(경상북도 안동시)** 하회 마을은 풍산 류씨의 동족 촌락이다. 조선 시대의 전통 가옥과 입지 경관이 잘 나타나 있으며, 2010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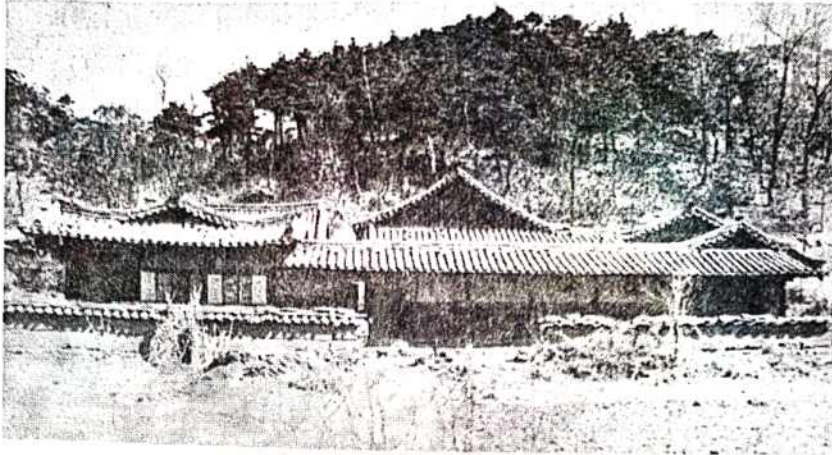


촌락 주민들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공동체 의식이 도시에 비해 강하다. 촌락은 생산 기능에 따라 농촌, 어촌, 산지촌 등으로 구분하며 자연환경에 기반을 두고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였다. 예컨대 촌락은 주로 남향의 배산임수 입지를 선호하는데 이는 겨울의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막을 수 있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벼농사 지역에서는 협동 노동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가옥이 한곳에 모인 **집촌(集村)**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며 *** 동족 촌락**이 나타나기도 한다.

▲ 천재교육 한국지리 p.94

또한 임덕순의 문화지리학(법문사, 351~352)에도 동성 부락(Lineage Village) 또는 동족 부락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림 7-17] 同姓(同族)부락의 결속상징인 宗家(주남칠): 종가는 대개 부락내 最古家이다(경북 안동군 임하면 천전부락 義城金氏 종가). 이곳은 유명한 풍수길지취락의 하나이다.

교훈적 시설물이다. 마을을 드나들면서 보고 배우라는 것이며 동시에 마을의 자랑거리로 내세운 것이다. 이런 식의 취락(마을)구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풍수적이고 전통적인 봉화읍 소재 유곡마을(담실마을; 안동 권씨 부락)이다.

한국의 同姓部落(同族部落 lineage village 내지 clan village)도 어떤 思想이나 관념과 관련있는 촌락이다. 동성부락에는 대개 中始祖 이하의 공동시조를 가진 같은 姓氏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면서 살아가며 宗家, 祠堂, 정려각(열녀비각), 오래된 神聖木인 洞樹(洞藪), 書院, 정자(이상 둘은 큰 부락의 경우) 등 의미있는 경관구성물들이 있다. 종가는 中始祖의 혼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서 그 위치는 대개 마을 한가운데이거나, 약간 높은 양지바른 곳이다. 中心性이나 生活適地點性이 크게 고려되었기 때문이다((그림 7-17)). 사당은 역대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어서, 그 둘 다 동성 부락내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상징이다. 서원은 정신적-교육적 공지의 표상구실을 하며 은행목, 느티나무 등 동수는 사당과 함께 洞祭의 터이다. 정자는 그 동성집단의 과거 威勢를 보여주기도 한다.

▲ 임덕순의 문화지리학(법문사) p.351~352

또한 이전 교수님의 ‘촌락지리학’ (푸른길, 62~70)에도 다음과 같이 동족촌, 종족촌, 집성촌이 혼용 가능한 용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동족촌의 성립과 특성

동족촌의 발생, 분포, 특성

같은 조상으로부터 파생된 동성동본同姓同本の 혈연 집단을 동족同族 혹은 종족宗族이라고 하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이룬 촌락을 동족촌同族村이라고 한다. 동족촌은 종족촌宗族村, 집성촌集姓村, 동성촌同姓村, 동족부락同族部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래에 상공업의 발달,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 증대, 기독교 문화의 전래와 보급 등의 현상으로 인해 농업을 바탕으로 유지되던 동족촌이 점차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1930년에 실시한 센서스는 각 도별 동족촌의 발생 연대를 신고 있는데, 이 당시에 존재하는 동족촌 1,685개 중에서 38.3%의 동족촌이 1430~1630년의 200년 동안에 성립되었다(표 5-2). 1830년 이후에 발생한 동족촌은 1.4%에 불과하다.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의 동족촌 수가 가장 적는데, 이는 이 지역이 대부분 조선 시대의 변방 신개척지로 이주민들에 의해 촌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촌락지리학(푸른길) p.62

마지막으로 검색창에 ‘종족 촌락’ 을 치면, ‘동족 촌락’ 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또한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구요. 그러므로 만약 ‘종족’ 촌락만이 유일한 정답이 되려면 최소한 우리 지리과에서 ‘일제강점기’ 정도의 용어 정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교과서에 수록된 용어라도 고쳐주시든가요.^^